

도시철도 2호선 질의 앞두고 경제부시장 출석 요구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광주시의회는 지난 7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와 감사관실, 복지건강국 위탁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째 이어갔다. 교육위원회도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특히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이례적으로 우범기 경제부시장 출석을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 경제부시장 출석 요구=시의회 산건위는 “오는 11일 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우범기 경제부시장이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의회 상임위원회는 통상 실·국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부단체장은 분회의와 예결위에 출석한다.

이번 경제부시장 출석 요구는 시의 최대 현안이자 주민 찬반 갈등요인으로 부상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와 관련한 질의·답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렴도·반부패 경쟁력 추락

감사위원회 신설 해야

학교 기숙사 입사생 선발

원거리 통학자 고려 안해

산건위는 이날 우 부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국비확보와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한 것과 관련한 질의와 건설 여부 쟁점이 된 시 재정부담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중 산건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갈등이 적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부시장을 직접 불러 국비확보 문제와 최근까지 이뤄진 분석내용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청렴도 등 최하위·감사위원회 신설해

야=박준수(새정치·남구 3) 의원은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와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분석 결과 광주시는 매년 추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감사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렴도 평가의 경우 2009년 전국 1위였던 광주는 2010년 5위(2등급), 2011년 4위(2등급), 2012년 8위(3등급), 2013년 11위(3등급)를 차지했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2010년 8위(3등급), 2011년 14위(4등급), 2012년 12위(4등급), 2013년 10위(4등급)였다.

박 의원은 “실추되고 있는 청렴도와 반부패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감사관실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근거한 감사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기숙사 운영 문제점 지적=김영남(새정치·서구 3) 의원은 7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 기숙사 입사생 선발기준이 사회적 배려자나 원거리 통학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

적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면서 선발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총 31곳인데도, 이중 단 한 곳도 원거리 통학자나 장애 학생, 사회적배려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발기준이 없었다”면서 교육청의 무심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공립 6개 학교, 사립 12개 학교의 기숙사가 정원미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방(새정치·북구 6) 의원은 “내년이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친일 인명사전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고 홍보가 미흡하다”면서 “보급률 확대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서라도 ‘친일인명사전’이 공공 도서관 등에 반드시 비치되어야 하고, 또한 일선 학교 도서관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대통령 APEC 참석 출국

시진핑과 회담... FTA 타결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참석차 출국했다.



중국과 미얀마, 호주 등 3개국을 돌며 다자 정상외교를 벌인 뒤 오는 17일 귀국하는 8박9일간의 장기 순방이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되며 Barack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APEC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기간인 10일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취임 후 다섯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등 한반도 지역 정세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한중 회담 결과 30개월간 협상을 끌어온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선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1일 토니 에벗 호주 총리, 라넌 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FTA 문제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노인 무료급식소 관리 엉망

24년 동안 방치 ... 첫 점검

문태환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시가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24년 동안 방치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위생관리와 회계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광주시의회 문태환(새정치·광산 2)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16~24일까지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제공기관 3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광주시가 결식 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북구와 남구만이 2차례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31개소 중 미신고 19개소(70%), 영양사 의무배치 대상 22개소 중 미배치 13개소(40%), 유통기한 위반 등 위생관리가 부실한 급식소가 대거 적발됐다.

이밖에 위생점검일지 및 급식일지 미작성 6개소, 식중독 예방계획 및 위생교육 미실시 3개소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도 광주시는 보조금 집행, 후원금 등 재무회계규칙 준수, 예산의 수입지출, 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은 현장에서 장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교적 시설이 열악한 종교 및 민간단체보다 오히려 종합사회복지관 등 영양사가 배치된 급식소들이 위생관리에 더욱 허술해 광주시의 지도점검 방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 의원은 “광주시가 24년간 지도점검에 나서지 않고 있는 동안 심각한 지경이었다”면서 “복지는 단순히 예산만 지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끊임 없는 지도점검과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북 억류 2년만에 석방된 미국인 북한에서 2년만에 풀려나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매코드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국 시민권자인 케네스 배가 그의 동생 테리, 어머니 배명희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각종 공사 잦은 설계변경 257억 증액

5억 이상 증액 사업만 11건

전남도가 최근 1년간 각종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25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9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설계변경을 한 58건 공사 중 40건은 증액, 18건은 감액했

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순증액은 257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영남~화순 국가자원도로(국지도) 사업이 78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화양~나진 국지도 31억5900만원,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26억2600만원, 일로~봉탄 국지도 18억300만원, 진월~광영 지방도 16억4800만원, 자은~

지도 지방도 11억400만원 순으로 공사 액수가 늘었다.

예산이 5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11건에 달했다. 감액된 주요 공사는 남포~장재 지방도 2억4500만원, 하의~신의 도로 개설 8700만원, 대약천 개선 북구 8500만원, 호동천 재해예방 7300만원, 유치~이양 지방도 6600만원 등이다.

전남도는 불가변동분과 민원, 감사지적 사항 반영 등으로 설계비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심한 것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민선 6기 4년간

기업 1000곳 유치

일자리 2만6000개 창출

전남도가 민선 6기 4년 동안 기업 1000곳을 유치해 일자리 2만6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유치대상은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고용 5인 이상인 곳으로 제한했다.

전남도는 9일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담은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5기 유치 기업 842곳보다 158곳이 늘어난 것으로, 대표적으로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와 삼포자동차 튜닝밸리에 각각 200곳, 100곳의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또 도비 보조금을 연간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입지 보조금 위주에서 고용·시설 보조금으로 전환해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생물, 신소재, 자동차 부품 튜닝, 세라믹 등 청년층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보조금을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국비보조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온 수도권 이전기업,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2007~2013년 간 492억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쑥쑥!!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폰뱅킹 청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해당해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요서비스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오시는 길

KT서광주지사
서구청
신협

● 서문교회
● 돌고개역 1번 출구
● 양동시장

정은주·김석 치과 KT

문의처 062)365-7528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시~오후 7시
- 야간진료(화요일) | 오전 9시~오후 9시
-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2시 30분~오후 2시
- 주일, 공휴일 휴진

개원 일시

2014년 11월 1일(토) 12시~오후 4시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54 (월산동, 가람빌딩 3층, 돌고개역 1번 출구)